

알기쉬운 성형상식

<下>



인간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늙어감에 따라 특히 여성층의 대인 관계에서 좀더 젊어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안면주름을 없애는데 이마목 불 눈주위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마의 주름을 없애는데는 머리가 있는 피부를 박피하여 주름을 없앤 상태에서 나머지 피부를 절제한 후 봉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수술은 기술적으로 힘들고 합병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눈주위의 주름을 없애는 수술을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양측 상하안검을 동시에 혹은 상하 안검중 하나만 시술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른 주름 수술과 마찬가지로 절개반흔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부위를 절개하여 주름이 있는 피부를 박피하여 완전히 편 후 봉합하는 것이다.

우리 동양인은 많은 사람이 상안검에 쌍가풀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쌍가풀 수술을 원하고 있다. 쌍가풀수술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필자의 경우 대개상안검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제거는 사용치 않고 있다. 눈이 지방제거 후 많은 환자에 있어서 수술결과에 회의를 느끼며 안검 기상근의 손상을 받기도 쉽다. 안면 피부가

노화되면서 많은 주름이 생기고 목과 볼의 피부가 늘어지는데 이때는 양측 귀의 직전에서부터 직후에 이르는 피부절개를 통하여 목과 볼의 피부를 박리한 후 주름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광범위의 수술조작이 필요하여 수술후에 피하에 응혈이 고인다든지 감염창 일부 피부의 소실, 피부색의 변화, 모발의 소실, 안면 신경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

용비술(코농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람의 용모나 인상을 말할 때 흔히 이 목구 비를 운운하는데 그만큼 코는 용모의 중심이라 하겠다. 용비술이라 함은 그러한 코의 여러가지 기형중 안비(안장코)에 대한 성형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성형술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비성형술하면 일반적으로 앞은 코 즉 안비에 대한 용비술만을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것은 우리 동양인의 통념이고 이와 반대로 구미각국의 백인에 있어서는 도리어 높은 코에 대한 성형술이 보통이다. 어느 성형이고 그 주위의 신체부분과 어울려서 균형이 잡혀야겠다. 각개인은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있다. 동양인의 안면에다 코만 크게 만든다는 것은 과연 우수한 것이다. 가장 추하게 보이는 것은 비천(鼻尖)의 상태를

고려치 않고 무작정 비배만을 높인 형체로서 이는 흔히 매코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용모를 위한 것과 또 하나는 그 기관의 기능을 교정 개선 또는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 후자는 자칫 망각되기 쉬운 것이다. 외모만을 고려해서 비성형을 해가지고 비자체의 기능 예를 들면 호흡도로서의 기능의 장애 즉 비폐쇄증을 초래하든가 취각장애를 가져온다면 큰 일이다. 이점 특히 주의치 않으면 안되겠다.

땀과 먼지로 피부가 불결해지기 쉬운 때가 되었다. 겨드랑냄새(액취)로 남모르게 고민하시는 여성들이 많은줄 생각된다. 인간에게서는 체취라하여 액취(液臭) 구취(口臭)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인종에 따라 독특한 냄새가 난다. 피부에는 땀냄새와 기름냄새 그리고 냄새를 풍기는 아크로포틴선이 있는데 이 선은 주로 겨드랑이 배꼽주위 외음부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선이 크고 많을 때 냄새가 나게 된다. 겨드랑냄새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사람이 많은데 신경을 몹시 쓰면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다. 치료방법의 첫째 조건으로는 물로 깨끗이 씻을 것을 권하고 싶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완전한 것이라컨 그 부위를 절제 하는 수술요법일 것이다.

〈필자=성형외과 개업의·의박〉